

도시발전에서 따른 건축가의 역할

건축가들은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한다. 사회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거의 공통으로 실감하고 있으며 무엇이 건축가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일본과 달리 근대화의 역사가 짧고, 그나마 20세기초부터 중반까지의 일본 강점시대와 해방후의 전쟁, 수복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의 이상형으로 서구의 '아키텍트(architect)' 상을 지향하였으나 아직도 그 직능(profession)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직능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는 일본건축가들이 제기한 문제와 또 다르다.

옛날과 달리 건축생산의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농경사회때의 생산방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계와 전자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루어내는 시스템도 혼용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건축설계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건축생산체제도 부분적이거나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에서 직종별 영역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추세이고 자연히 전문영역이 모여 협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건축생산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계조직도 따라서 대형화되는 움직임이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 조직의 건축가들은 우선 전문 종합집단으로서의 대규모 조직과 경쟁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management)업무도 그 시간에 더 많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건축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프로페션, 즉 의사와 변호사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건축과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서구의 역사를 통한 관점이기는 하지만 건축물(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은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건축물이 실용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그 기준에 따라 정리된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척도, 미적인 관점,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그 가치를 재는 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물' 혹은 '건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대상이 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건축가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직능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건축이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척으로 건축가의 통솔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갔다.

건축은 감성의 산물이라고도 말한다. 건축의 실천을 통하여 치밀하게 계산되고 제어된 감성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때 문화로서 건축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정신적인 사고를 형태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여 건축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3)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
-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黃鏞周/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건축에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척도, 미적인 관점,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그 가치를 재는 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물' 혹은 '건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사회의 가치기준을 반영하는 대상이 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건축가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직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건축가의 통솔범위를 크게 확대시켜 왔다.

도시건축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내는데 이 과정을 설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수행하는 작업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역할도 건축가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중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계몽주의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시기 이후로 보는 것이 좋겠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고 있을 즈음에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의 선언과 활동은 당시로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25년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이 활동은 당시의 스펀화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은 인간성, 지역성 등을 상실케하고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의 성격과 구조를 파괴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 후 1962년경 결성된 팀텐(Team 10)의 활동과 선언은 파괴되어 가는 도시조직을 회복시켜보려는 젊은 건축가들의 시도로 그 결성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르코뷔제(Le Corbusier)는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1930)를 제안하였으며, 옹거스(O.M Ungers)는 '새로운 건축에 관하여'를 통하여 기능주의 건물에 대한 비판과 도시공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도시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제시한 솔레리(Paolo Soleri), 아키그램(Archigram)등의 건축가 또는 건축가 그룹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독시아디스(C.A Dosiadis)의 에키스틱스(Ekistics)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구조물 등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하고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를 통하여 도시의 구성요소를 언어로서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도시에 적용하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어(Rob Krier)는 도시조직을 통하여 재발견하고, 파괴된 도시공간(urban space)을 지역특성에 맞게 회복시키고 창출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도시건축에 대한 제안과 선언과 처방을 시도한 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은 근대건축운동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시도가 기존의 도시 성격과 조직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활력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이 있다.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한 브라질리아 신도시 계획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많은 실패사례에 위축되어 우리 건축가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제안과 선언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러한 실패를 우리마저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난립상태의 도시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를 생각하고 해석한 것과 같이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도시를 건

축과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서 해석하여 도시성을 회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어 삽시간에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 지난 3,40년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 채 바꾸어 놓았다. 토지와 함께 삶을 꾸려온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이제 도시에서 갈데 없는 미아가 되어 떠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서구의 도시문화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아무런 여과없이 밀려드는 가운데 우리의 도시는 크게 다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농촌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는 폭발하듯 확장되고 엄청난 양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터도, 쉬는 곳도 들어가고 부정적인 도시시설도 생겨났다. 혼잡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부추기는 다른 매력이 도시에 가득차게 되었다.

세계의 도시인들이 뉴욕을 선호하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교통, 공해,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의 불쾌함때문에 도시에 사는 일이 힘들다고는 하여도 도시는 도시대로의 분위기와 문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는 단지 일터와 집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발산지로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도시 속성을 이해하고, 도시적 삶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나의 건물은 작은 도시이며 하나의 도시는 커다란 건물이다'라고 말한 알도 반 아이크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건물이 모여 결국 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에 엄청난 양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도시의 환경개발은 건축가가 선도하여 나가야 할 영역이다. 더이상 경제행위 수단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문화와 호흡하는 생명력있는 건축을 세워야 한다.

80년대 우리는 올림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정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문화의 중심으로 재창조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배양된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